

제5회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회

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려



국내 인쇄문화의 향상과 특수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되고 있는 제5회 국제특수인쇄산업 전시회(PRINKOR 2009)가 오는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에 위치한 코엑스(COEX)전시장 C-4홀(구. 대서양관)에서 열린다. 이번 전시회는 대한인쇄문화협회,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, 한국이앤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,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,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,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있다.

인쇄의 디지털화 및 특수인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PRINKOR 2009는 약 15개국 120여 개사에서 기존의 특수인쇄의 영역은 물론, 특수인쇄영역의 확대와 시장다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 주요 전시분야로는 디지털인쇄기, 라벨인쇄기, 스크린인쇄기, 제본설비기재, 인쇄재료 및 OA기기, 특수인쇄기분야, 포장관련기기, 인쇄전자기기, 후가공기계, 인쇄 및 출판 서비스 등 특수인쇄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들이 출품된다.

특히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인쇄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“인쇄전자 시대 개막과 인쇄인의 자세”를 비롯하

여, EL인쇄, RFID, 라벨, 포장 등 인쇄시장의 현주소와 특수인쇄산업의 미래를 제시해줄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수준 높은 인쇄관련 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개최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. 아울러, 전시장 내에 우수한 특수인쇄물을 전시, 소개하는 “특수인쇄전시관”, “인쇄문화관”등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고인쇄문화와 특수인쇄물들을 전시, 소개하고 고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연장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.

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람객은 PRINKOR 홈페이지에서 8월 19일까지 인터넷 사전등록을 하거나 현장등록을 하면 전시장입구에서 입장카드를 교부받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.

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 주최측인 한국이앤엑스 PRINKOR 2009 사무국(02)551-0102이나 홈페이지(www.prinkor.com)를 이용하면 된다.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PRINKOR는 특수인쇄 분야의 기술향상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격년으로 개최되면서 관련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. ☞